

## ■ 서문

### 편집자 서문

김 철 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소위 ‘포스트휴먼’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이스는 어떤 존재일까?

더블린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진다 해도 『율리시스』의 서술을 따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그의 모습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장 19절)라고 외쳤던 예수의 메시아적 결기가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율리시스』 속에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들을 감춰두었기에 앞으로 수세기 동안 대학 교수들이 그[조이스]가 뜻하는 바를 거론하기에 분주할 것이라는 말투 속에는 예언자적인 아우라와 더불어 천재 작가의 장난기까지 엿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조이스의 작품들은 지난했던 그 출판의 역사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다양한 평가들로 인하여 지난 수 세기 동안 셀 수 없는 학자들의 입과 손발을 바쁘게 해 왔다. “현미경에 비친, 벌레가 득시글대는, 인분의 덩어리”(A heap of dung, crawling with worms, photographed by a cinema apparatus through a microscope)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예술”(too perfect art)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그의 작품에 대한 비평의 역사는 문학비평 그 자체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조이스 비평의 파도 위를 씬 없이 서핑해온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는 작년에는 우리나라 영문학계에서 몇 되지 않는 단일작가 학술지의 하나로 당당히 그 위상을 지켜오고 있는 『제임스조이스저널』의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였고, 내년이면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매년 2회에 걸친 학술대회와 매 2년 마다 실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켜 온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는 평상시에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조이스 작품

독회(현재는 *Finnegans Wake*를 읽고 있음)를 통해 회원 간의 연구 정보 교류와 그 지평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또한 매 짝수 해 봄에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최소한 5개국 이상의 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세계적인 학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2018년 6월 30일자로 발행되는 『제임스조이스저널』 제24권 제1호는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회장인 길혜령 교수가 재직 중인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Multi-contextuality and Joyce”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던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18년 봄 정기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들과 그 외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의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투고한 논문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호에 게재된 11편의 논문들 중 조이스 관련 논문이 9편이고, 울프 관련 논문이 2편인데, 각 논문들은 두 작가의 작품들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깊이가 있으며, 참신하면서도 다양한 입장들을 개진하고 있는 바,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조명해주고 있다.

‘실수로 잘못 파고 들어가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이스 작품의 다양성은 그 작품들 속에 씨줄과 날줄로 직조되어 있는 엄청난 문학적/예술적/종교적/역사·철학적 맥락(Multi-contextuality)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번 호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들 속에서 그러한 다중 맥락성의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길혜령은 “The ‘Nightmare’ of the Great Famine: Guilt-Ridden Paralysis in *Ulysses*”라는 논문을 통해서 조이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아일랜드 대기근의 역사성과 그 의식적 흔적을 *Ulysses* 문맥의 마디마디에서 찾아내고 있고, 민태운은 「조이스와 쓰레기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고상함과 우아함을 애써 비껴간 조이스의 작품 세계의 특징을 파고들면서 칼 라텍(Karl Radek) 식의 혹평을 과감히 뒤엎으며 조이스 문학의 사실성을 옹호한다. 그런가 하면 이영규는 최종갑과 함께 쓴 논문, 「『율리시스』에 나타난 문화적 기억장치로써 음악의 역할: 「텔레마코스」, 「사이렌」, 「키클롭스」를 중심으로」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 공유된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그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억을 형성하며 작품 속에서 충돌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양상을 전개해 간다.

이인기의 논문 「『진흙』과 ‘상처 입은 치유자’ 마리아: 조이스의 실존주의적

인간이해」는 마녀의 얼굴을 연상하게 하는 노처녀 마리아의 삶을 실존주의의 거울에 비추어 외견상 마비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타인을 돌보며 “진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중심인물의 ‘치유자’로서의 삶의 궤적을 따뜻한 시선으로 개진하고 있다. 같은 작품에 대해 임경규는 “『깔끔한 거울』: 제임스 조이스의 「진흙」이라는 논문을 통해, 더블린의 도덕적 마비를 비추기 위해 조이스가 고안해 낸 ‘잘 닦여진 거울’이 현실을 옅게 비추기보다는 오히려 금 간 거울이 되어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전은경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대한 네 사도의 변주: <피네건의 경야> 2권 4장 읽기」라는 제목으로 *Finnegans Wake*의 제2권 4장의 에피소드를 분석하면서, 조이스가 신약성서의 네 사도(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입을 빌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신화를 변용함으로써 위대한 중세의 신화를 한낱 페스티쉬로 전락시키는 과정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한다. 타이완 출신 조이스 학자인 리링 쟁(Li-ling Tseng)은 “Wandering vs. Monumental Textual Effects in ‘Wandering Rocks’”라는 논문을 통해 『율리시스』의 「배회하는 바위들」 에피소드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문체인 ‘유주성 문체’와 ‘지주성 문체’를 분석하여 작품의 일관적인 흐름을 방해하고자 사용된 ‘유주성 문체’가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전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주성 효과’를 회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허동범의 「『가슴 아픈 사건』-보상받지 못한 슬픔과 기억」은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단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통해, 타성적 습관과 비자발적 기억 사이의 씬 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종식시키는가, 그리고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구체적인 힘을 지닌 채 침투하는지를 탐색한다. 홍덕선은 「조이스 문학의 유토피아적 욕망과 파국적 상상력」이라는 논문을 통해 『율리시스』의 「키르케」 에피소드를 분석하면서, 블룸의 성적 죄의식에서 발발한 트라우마가 표출되는 순간에 그의 정체성이 상실되는데, 그러한 상실은 “새로운 여성형 남성”으로의 변환을 통해 아일랜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내면화된 어머니”를 찾으려는 혁신적 욕망을 드러내게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버지니아올프학회’의 회원인 김금주는 「『델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생성의 순간들: 니체의 철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꽃을 사러 나가서 역동적인 런던의 거리를 경험하면서 매순간 새롭게 삶을 창조하게 되

는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최종의 상태를 목표로 두지 않는 유동적인 변화를 삶의 핵심으로 설파한 니체의 철학을 읽어낸다. 그리고 박신현은 “Eros and Beauty Already Involving the Sublime: *To the Lighthouse and Orlando: a Biography*”라는 논문을 통해서 두 작품 속에 나타난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결합의 결과물인 사랑과 아름다움의 긴밀한 연관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철학적 논구를 펼친다. 예년에 비해 양과 질에 있어서 많은 향상을 보인 좋은 논문들의 뒤를 이어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18 봄 학술대회’의 이모저모와 그간의 학회 행사 및 소식들이 사진과 더불어 게재되어 읽는 이들의 흥미를 돋우게 된다.

비록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현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프리즘들로 구성된 이처럼 풍성한 학술 연구의 열매들이 상존하는 한,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와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의 존재의 이유는 밤하늘 한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북극성의 조도만큼이나 분명할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대)